

#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연구

## A Study on Copyright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최윤형,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redsevenyh@naver.com

김성원,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ungwonk@cnu.ac.kr

Yoonhyung Choi,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ngwon Kim, Prof. Dept of L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이뤄지면서 영리 출판사를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배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규정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정보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원문 제공 빈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고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진행될 저작권 동의서 표준안 개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 1.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든지 자신의 연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계에서 인증된 권위 있는 학술지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학문적 성취를 검증받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회학자 Merton이 제시한 학술정보의 네 가지 특성과 관련이 있다.(정경희 2007)

학술정보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누적성),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공유성),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새로운 연구업적에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선취성)은 공개(공개성)를 전제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학술정보의 특성은 현행 저작권의 개념과 상충되며, 공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영리 출판업체를 통한 학술정보의 유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지난 4월 하버드대학교는 교수·연구진들에게 “갈수록 치솟는 구독료 인상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한 무료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유료정책을 고수하는 학술지는 탈퇴할 것을 권고하였다.(대학신문, 2012.4.28)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에게도 학술연구의 핵심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 학술지의 구독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영리 출판업체가 학술지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됨으로써 발행 및 유통부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국내 학술지의 발행 및 유통 구조는 외국과 차이가 있다. 국내 학술지의 발행과 유통은 그 주체가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행은 비영리 학술단체인 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체가 되며, 유통은 정부출연기관(KISTI ‘과학기술 학회마을’, KERIS ‘RISS’)과 영리 원문 DB 서비스업체(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

디어의 'DBPIA')를 중심으로 운영된다.(홍재현 2008) 그러나 발행과 유통의 운영주체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귀속 주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이용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지의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제공 빈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 표준안 개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내 학술지 저작권 귀속 현황

본 연구는 KCI 등재 학술지 1596종 가운데 2010년도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를 근거로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표에 의거한 8개 학문분류, 각각 20종씩 총 160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영향력지수는 논문의 인용빈도를 논문수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으로, 높은 영향력 지수를 갖는 문헌은 인용 체인이 많음을 의미하고 해당 문헌을 직, 간접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이 상호간에 인용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정준민 2010)

즉, 영향력지수(IF)가 높다는 것은 해당 학술지가 많이 이용되어졌고, 앞으로도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률이

높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저작권의 준수 또는 침해의 빈도가 다른 학술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저작권 귀속 현황과 유통 채널 유형의 제공 빈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 2.1 저작권 귀속 규정의 유무

대상으로 선정한 학술지 160종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저작권 권리 귀속 규정의 유무 현황은 <표1>과 같다. 학술지 160종 가운데 두고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통해 해당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93종으로 전체 대상의 58.8%로, 복합학(7종, 35%)과 인문학(5종, 25%)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권리 귀속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원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 규정인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을 명시한 학술지는 규정이 표기된 93종 가운데 13종(14%)에 불과해 최근 학술지 유통 방식에서의 괴리를 보인다.

### 2.2 저작권 양도 동의서 활용 현황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동의서로, 일부

<표 1> 학문분야별 권리 귀속 규정 현황

(중)

구분	권리 귀속 규정 有			권리 귀속 규정 無	계(%)	저작권 양도 동의서 사용
	디지털 복제· 전송권 규정 有	디지털 복제· 전송권 규정 無	계(%)			
인 문학	4	1	5(25%)	15(75%)	20(100%)	0
사회과학	1	13	14(70%)	6(30%)	20(100%)	7
자연과학	3	13	16(80%)	4(20%)	20(100%)	10
공 학	1	10	11(55%)	9(45%)	20(100%)	7
의 약 학	0	17	17(85%)	3(15%)	20(100%)	16
농수해양학	1	10	11(55%)	9(45%)	20(100%)	3
예술체육	2	10	12(60%)	8(40%)	20(100%)	8
복 합 학	1	6	7(35%)	13(65%)	20(100%)	3
계	13(14.0%)	80(86.0%)	93(58.8%)	67(41.2%)	160(100%)	51(31.9%)

양도 시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송영식, 이상정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라는 명칭을 채용하였다.

저작권 권리 귀속 규정이 명시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활용하고 있는 학술지의 수는 총 51종으로, 학문분야별 이용 빈도는 권리 귀속 규정을 명시한 학문분야별 순서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유통환경의 구축, 그리고 학술지 발행 및 유통 주체가 구분되어 운영되지만 저작권 규정이 명시된 학술지 93종 가운데 80종(88.9%)은 규정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디지털 복제·전송권을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규정으로만 작성되어있다.

국외의 경우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양도되는 저작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되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투고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저자의 확인 서명이 포함됨으로 양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 3. 학술지의 유통 채널 유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술지의 홈페이지

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의 유통 채널을 크게 홈페이지와 유료DB로 구분하였다. 홈페이지는 입회비 납부 후 원문이 제공되어지는 유료 원문 제공과 불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원문 제공이 있다. 무료 원문 제공에는 입회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유·무료DB 원문 제공 모두 홈페이지의 유통 채널로서의 기능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유료DB는 160종의 조사대상 학술지의 유료DB를 통한 원문 제공 빈도를 조사하였다.

저작권 귀속 규정이 명시된 학술지의 유통 채널 빈도 조사는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 발행 학회가 개별 논문 저작권자로부터 일괄 저작권양도(신탁양도 포함)를 받아 특정 유료DB와 원문 제공서비스 계약을 맺는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김기태 2007) 학술지에 명시된 저작권 관련 규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논문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된다.’등의 표현만 있는 경우 양도의 범위는 아날로그 및 비영리적인 이용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으로 제한된다.(정경희 2007)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표3>의 경우이다. 저작권 귀속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학술지의 86.6%(56종)가 영리 원문 DB업체와 전송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따라서 신탁 처분권한이 없는 학회가 계약 주체가 되어

<표 2> 귀속 규정을 명시한 학술지의 원문 유통 채널 (중)

구분	홈페이지 원문 제공 서비스			유료DB 원문 제공 서비스					
	유료	무료	계	KISS	DBpia	KISS & DBpia	계	해당 없음	계
인문학	2	3	5(100%)	4	0	0	4(80.0%)	1	5(100%)
사회과학	13	1	14(100%)	8	3	3	14(100%)	0	14(100%)
자연과학	1	15	16(100%)	12	3	1	16(100%)	0	16(100%)
공학	6	5	11(100%)	3	4	0	7(63.6%)	4	11(100%)
의약학	2	15	17(100%)	9	5	0	14(82.3%)	3	17(100%)
농수해양학	2	9	11(100%)	8	3	0	11(100%)	0	11(100%)
예술체육	11	1	12(100%)	7	4	0	11(91.7%)	1	12(100%)
복합학	0	7	7(100%)	3	3	1	7(100%)	0	7(100%)
계	37	56	93(100%)	54	25	5	84(90.3%)	9	93(100%)

<표 3> 귀속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학술지의 원문 유통 채널 (중)

구분	홈페이지 원문 제공 서비스			유료DB 원문 제공 서비스					
	유료	무료	계	KISS	DBpia	KISS & DBpia	계	해당 없음	계
인문학	5	10	15(100%)	11	3	0	14(93.3%)	1	15(100%)
사회과학	4	2	6(100%)	4	1	0	5(83.3%)	1	6(100%)
자연과학	0	4	4(100%)	2	1	0	3(75.0%)	1	4(100%)
공학	5	4	9(100%)	6	0	0	6(66.7%)	3	9(100%)
의약학	1	2	3(100%)	2	0	1	3(100%)	0	3(100%)
농수해양학	4	5	9(100%)	5	1	3	9(100%)	0	9(100%)
예술체육	8	0	8(100%)	7	0	1	8(100%)	0	8(100%)
복합학	7	6	13(100%)	4	4	2	10(76.9)	3	13(100%)
계	34	33	67(100%)	41	10	7	58(86.6%)	9	67(100%)

체결한 전송권 신탁계약은 무효이며, 개별 권리자들의 이익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 및 대학도서관 등 이용주체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기태 2007)

고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온라인 유통에 적합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 표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본 연구는 학위논문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유통채널의 유형 간 비교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종합하면, 저작권 귀속 근거 규정을 갖추고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명시한 학술지는 전체 160종 가운데 13종(8.1%)에 불과하며, 귀속 규정의 유무를 떠나 유료DB업체와 전송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는 142종(88.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의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투고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윤희운, 이재민(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귀속 주체 별(저자, 학회, 저자·학회 공유) 투고 규정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가치규범이 전제된 합리적인 표준안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

김기태 (2007).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2, 38. 대학신문, 2012. 4월 28일 기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36>

송영식, 이상정 (2011). 『저작권법 개설』 제 7판. 서울: 세창출판사. 207-208.

윤희운, 이재민 (2006).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37(1), 32-34.

정경희 (2007). 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101-102, 114.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2-433.

정준민 (2010).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학술논문의 수명 및 계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74.

Robert K. Merton. 1973. 과학사회학Ⅱ. 석현호, 양종희, 정창수 역. 서울: 민음사, 1998.